

【대기 아동 729명 이란 충격】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올해 4월 1일 현재 오카야마시에는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 등에 입학할 희망해도 입학하지 못한 미입학 아동수는 1,343명, 그리고 대기아동 수는 729명으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고 반년 후인 2014년 4월 시점에서는 미입학 아동 수가 772명, 대기 아동 수는 0명이었으나 2년 동안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추가 보육 시설 확보 (937인분)에 주력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이제 미입학 아동의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 터였는지라 미입학 아동의 수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이번 결과는 저에게 있어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오카야마시가 도달할 정책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함께 내용 확인의 필요성을 생각해 미입학 아동 1,343명의 내용에 대하여 시의 담당자로부터 자세하게 알아본 결과 어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오카야마시에서는 지금까지 집에서 30분 미만의 거리에 입학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엔 대기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카야마의 경우 중심부에 사는 분은 차로 30분 달리면 주변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대기 아동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실제로 보호자가 매일 자녀를 등하교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현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시민 생활의 실태와

동떨어진 처리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카야마시에서는 이번에 「제1 희망부터 제3 희망까지 모두 입학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할 수 없었던 아이」는 빠짐없이 대기 아동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의 시민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기 아동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729명이라는 숫자를 낸 것은 이후의 정책 목표로 할 구체적인 숫자를 밝혔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카야마 시로서는 우선 입학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4월까지 800 명 이상의 입학 가능한 시설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을 목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시설의 양적 확보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보육사의 확보나 육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에도 대처하여 시민 여러분의 육아 환경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최근 입학 신청이 급속히 증가하고있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맞벌이 세대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년간 1,000 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 신청하신 배경으로는 오카야마시의 보육 환경의 정비와 충실을 위한 노력이 많은 보호자에 인식된 것으로, 취업 의욕과 보육 수요가 환기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카야마시에서는 앞으로도 설문 등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과오를 범한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잘못이다라는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의를 「실패」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시민 생활의 실태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것은 확실합니다.

오카야마 시에서는 이번 대기 아동의 재검토를 계기로 이 논어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원점으로 되돌아 가 앞으로는 보육 환경의 한층 더 충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시민의 여러분은 이 번의 재검토와 이후 오카야마의 대처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